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4·05
2017 | Vol. **544**

꽃피는 봄이 오면 (花咲く春が来れば)
Photo : Park Keun Hyung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이하여

야마나시현 특산 포도와 와인

야마나시현 소개

야마나시현(山梨県)은 일본열도의 가장 큰 섬인 혼슈(本州) 중앙부에 위치하며, 산림이 현 면적의 약78%를 차지하는 산림 현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즉, 남으로는 후지산(富士山), 서로는 미나미 알프스(南アルプス) 산, 북으로는 야쓰가타케(八ヶ岳)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후지산은 예로부터 분화를 반복하는 신비로운 산으로 사람들이 경외했고,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받들어졌으며, 그 아름다운 자태는 훗날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후지산과 그 주변의 사찰, 호수, 등산로 등을 한데 묶어 2013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야마나시현은 이처럼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림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물이 풍부해, 일본 전체 생수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덕분에 예로부터 과수 재배가 활발했다. 포도, 복숭아, 자두 생산량은 일본 최고를 자랑하며, 특히 야마나시

초여름의 후지산

현산 포도로 만든 고슈(甲州) 와인은 일본 음식과 잘 어울리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자매도시 충청북도와의 교류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는 수도에서 2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자연 환경, 특산물,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점 등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1986년 충청북도에서 야마나시현 일한친선협회와 충청북도 한일친선협회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이를 시작으로 1991년 고후(甲府, 현청 소재지) 상공회의소와 청주상공회의소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1992년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가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후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또 직원 및 학생 상호 파견 사업을 25년간 계속하고 있다.

2016년도의 활발한 교류 모습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주요 교류사업을 소개하면, 우선 7월 야마나시현에서 복숭아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전문기술교육을 개최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주최로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 3개 지역에서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현장 실습을 실시했다. 통역 겸 기술자문으로 충남대 교수도 참가해, 복숭아 농가 분들이 평소 안고 있던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현장 실습에서는 복숭아 수형과 전지관리 등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후계자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의 고민도 공유했다. 한편, 충북도내의 농지를 살펴본 일본인 강사는 “모든 농가가 일본의 농가 이상으로 농지를 소중히 여기며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고 말해, 자극을 받는 등 야마나시현도 배울 점이 많았다. 또한 매 교육 때마다 100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석하여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웠다.

9월에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전문기술교육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스포츠 교류대회

야마나시현 제과업체 방문

에서 개최되었다. 충북 충주시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세계무술연맹'이 있어, 1998년부터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무예마스터십은 무도 올림픽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가 기념할만한 제1회다.

6일 동안, 세계 무예 달인의 뜨거운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81개국 1940명의 참가자가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킥 복싱 등 17종목을 겨뤘다. 야마나시현 방문단은 자매지역 대표의 일원으로서, 리셉션 및 개회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은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각국 대표 인사, K-POP 가수 공연, 연극, 무예 시범,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등 올림픽 못지않은 화려한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11월에는 스포츠 교류 대회가 충청북도에서 개최되었다. 과거에는 필드하키, 양궁, 축구, 농구 등 여러 종목의 스포츠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야마나시현에서 소프트볼(여고생) 선수 16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스포츠 교류단이 방한해, 5일에 걸쳐 친선경기를 가졌다. 경기 외에도 합동 훈련, 회식, 시설 견학 등 충청북도 선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 선수끼리 금새 친해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공통 분야를 통한 교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017년 1월에는, 충청북도의 '본정초콜릿' 대표를 포함한 3명이 야마나시현의 제과업체를 방문했다. 일본에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각 지역마다 명과(銘菓)와 명품(名品)이 존재하며, 또 이것이 일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본정초콜릿은 1999년 창립 이래, 충북 청주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야마나시의 지역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과업체의 공장을 시찰하고, 양 지역의 '우호의 가교'로서 서로 소재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지를 모색하기 위해, 야마나시현 제과업체 3곳과 음료 업체 1곳을 방문했다. 산업 교류의 일례로 앞으로도 추진할 생각이다.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그 동안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거듭해 왔다. 2017년은 자매결연 25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로서, 올해 안에 양 지역 방문단이 상호 방문을 통해, 이제까지의 우호와 친선을 축하하고, 미래를 향해 교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결의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새로운 분야의 교류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경제와 산업 분야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로 장점과 자신 있는 분야를 소개하고, 이를 각각 인정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면, 우호의 의의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견실한 풀 뿌리 교류 활동을 거듭함으로써 일한 양국의 발전과 교류에 일익을 담당해 가고자 한다.

●문의처
야마나시현 관광부 국제관광교류과 국제교류 담당
山梨県 観光部 国際観光交流課 国際交流担当
TEL : +81-55-223-1435
HP : http://www.pref.yamanashi.jp/foreign/index.html#korean(한국어)
http://www.yamanashi-kankou.jp/korean/index.html(관광안내)

(집필: 야마나시현, 협력: CLAIR, Seoul)

Cool Japan!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일본 외무성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6'의 일환으로 한국 대학생 72명(인솔자 4명, 학생 68명)과 고등학생 71명(인솔자 4명, 학생 67명)이 9박 10일 일정(대학생 : 1월 31일(화)부터 2월 9일(목)까지, 고등학생 : 2월 14일(화)~2월 23일(목)까지)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한국청년방일단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에세이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학생과 한국의 각 지역에서 실시된 각종 행사 수상자로 구성되었다. 일행은 '일본 지방의 매력과 지산지소(地産地消 :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 라는 테마 아래, 대학생단은 홋카이도 삿포로 시(札幌市), 노보리베쓰(登別) 온천과 도쿄, 요코하마 시(横浜市)를, 고등학생단은 히로시마(広島), 와카야마(和歌山),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도쿄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Cool Japan'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에서 일반 가정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홈스테이, 학교 방문, 기업 방문,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체험 활동(잼, 기슈빙초탄풍경(紀州備長炭風) 만들기), 기모노(着物) 입기와 노가쿠(能楽) 체험 등 일본 전통문화 체험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귀국 후에도 SNS 등을 통해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서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지원(8단 학생대표)

이현승(9단 학생대표)

한국청년방일단, 일본을 담다

유지원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

지난 2월, 9박 10일간의 꿈 같던 한국청년방일단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방일단에는 일본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국악, 경영, 공학 전공자 등 다양한 학생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일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쿄와 홋카이도(北海道) 지방을 방문하여, 일본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지산지소의 테마를 가진 요리들을 맛보았으며, 시민들과 교류하며 일본의 참 매력을 알아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 내가 학생대표를 맡았던 8단의 경우, 34명 단원들이 방일 중은 물론 후에도 총 753건의 SNS를 발신했다. 발신 매체로는 인스타그램(467건), 페이스북(139건), 블로그(99건), 트위터(48건)가 이용되었다. 이후 각자 네이버 카페(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Cool Japan 리포터, http://cafe.naver.com/youthexchangejpkr)에 게시한 글까지 고려하면, 1인당 약25건의 발신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SNS 발신 활동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조사한 결과, 크게 두 주제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요코하마 시민교류회, 홈스테이, 홋카이도 대학탐방 등 일본 시민들과 교감했던 '교류'의 테마다. 두 번째는 일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일본인들과 교류했던 활동이 단원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답변은 8단 단원들에게 '방일 프로그램 중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세 가지 활동'을 조사한 설문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설문 결과, 단원들이 꼽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일본 시민들과의 교류' 였다. 일본인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 여행으로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단원들은 기모노를 입어보고, 일본 민요에 소란부시(ソーラン節) 춤을 배우는 체험 활동이,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방일 전 몇몇 단원들에게 일본의 이미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였지만,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 활동을 통해, 일본인들의 행동이 타인을 향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청년방일단이라는 경험은 단순한 일본여행이 아니었다. 이는 이웃 나라 일본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감하고 배움으로써, 미래 양국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우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금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결같이 보여준 예의와 친절 속에서 일본을 느끼다

이현승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날이 많이 풀렸다. 겨울 옷을 정리하며, 지난 방일 프로그램의 추억을 곱씹어 보았다. 11월 서류 지원부터 2월 방일 체험까지 3달 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던 12월 12일 '곧 합격자 발표인데…' 하며 시계만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9박 10일간의 일정 설명을 들었고, 9단 학생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모든 준비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일본에서 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는 것이었다. 개인 여행으로 갈 때는 일본인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 그저 '길 알려줄 때 성심껏 알려준다' 는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지만, 9박 10일 동안은 요코하마 시민과 교류회, 홈스테이 등 일본인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마주할 기회가 많았다. 이런 일정 중 일본인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예의와 친절을 통해, 이러한 태도가 상대를 얼마나 편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어, 다른 이를 대할 때의 내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 일본은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빈틈이 없다는 것이다. '일이란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비롯해 참가 학생 모두 시간이 흘러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이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일 프로그램이 끝난 지 어언 한 달이 지났지만, 가끔 그 때를 생각하면 즐거운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났다는 사실에 서운할 때가 있다. 9박 10일은 인생이라는 너른 바다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소중하고 뜻 깊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 마음 속의 일본

노세인 대전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출발 당일, 공항에 모여서도 일본에 간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를 실감하며 9박 1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내 마음 속의 일본'을 넓힐 수 있었다.

가장 기대했던 일본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잘 융합되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전통적 가치를 많이 잃어버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은 다도(茶道), 가부키(歌舞伎)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 문화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도의 형식이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정신과 몰입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다도 체험이나 정적이지만 의미 있는 동작을 따라 해본 노가쿠(能楽) 체험, 매우 열정적이었던 와다이코(和太鼓) 체험 등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일본 하면 손사래부터 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그들 중 대다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분야에서는 일본에 대해 문외한이며, 일본인

은 차갑거나 마냥 소극적일 뿐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만나고 교류한 이들은 흔히 생각하는 일본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정이 많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교류하기도 했으며, 사진을 잔뜩 찍어 추억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 나름 일본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나 자신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으니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아갈 기회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호의를 갖고 교류를 이어가서 각자 마음 속의 일본과 한국을 더 단단히 쌓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일본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해준 방일프로그램

김은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일본에서 보낸 9박 10일이 어제 같은데, 나는 고교 3학년이 되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일프로그램은 내게 뜻 깊은 경험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쿨재팬 리포터의 테마인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제대로 느끼고 온 것이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 일정 중, 유독 기억에 남는 '홈스테이'. 내가 헤어지기 아쉬워 펑펑 울자, 다른 친구들까지 따라 울었던 기억이 난다. 친할머니 같던 '시-짱(しーちゃん)'. 함께 홈스테이를 한 3명에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려 하셨다. 그 지역에서 난 '굴(カキ)'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던 모습과 혼자 계실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게 된다.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사진과 편지를 보내보고자 한다.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지만 답장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9박 10일 동안, 나는 '일본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처음에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로 진학할 생각만 했지만, 이번 방일 프로그램으로 갔던 '히로시마(広島)' 대학으로의 진학을 처음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학생과 교류하면서 일본 대학으로의 진학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한일본대사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등 관계자 여러분, 아이(相) 상, 정용기 단장님과 송희진 인솔교사님 그리고 통역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9박 10일동안 함께 했던 10단 단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꾸준히 연락하기를 바란다.

민간 외교관에서 외교관으로

헝가리국영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시절의 일본 홈스테이 경험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유학하며 긴밀한 인연을 맺어온 칼만 안드레아 주한헝가리대사관 문화참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의 언어비교와 문화교류 등 외교관이 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일본과의 인연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일본과의 첫 만남은 3살 때 일본에서 만든 인형 '몬치치'를 받고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몬치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몬치치가 태어난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 헝가리를 대표하는 전 세계에서 공연하는 헝가리국영방송 소년소녀합창단에 들어간 저는, 13살 때 합창단의 연주 여행으로 처음 일본에 갔습니다. 이미 몬치치 덕분에 일본은 인상 깊은 나라였지만, 여기에 일본 노래나 일본어 울림이 아름답게 느껴지며,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입니다. 합창단 교류를 통해 일본인 친구도 생겼고, 홈스테이를 경험하는 동안, 좀더 오래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합창단 관계로 신세를 졌던 시즈오카의 고등학교에서 1년동안 청강생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는 간단한 일본어 밖에 몰랐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조금씩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귀국 후, 부다페스트대학교의 일본어 학과로 진학했고, 재학 중에 국비유학생으로서 1년간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별과생으로, 졸업 후 2년간은 도쿄대학교 연구생으로 유학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각각의 학교에서 다른 시점으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어, 밸런스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다

日本との縁は。日本語を勉強したきっかけは。

最初の日本との出会いは，3歳の時，MADE IN JAPANの人形「モンチッチ」をもらったことです。両親からモンチッチは日本という国で生まれたという話を聞いた私は，モンチッチが生まれた国に一度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その後，ハンガリーを代表する世界中で公演を行うハンガリー国営放送少年少女合唱団に入った私は，13歳の時に合唱団の演奏旅行で初めて日本に行きました。既にモンチッチのおかげで日本は印象深い国でしたが，さらに日本の歌や日本語の響きが美しいと感じ，日本語を覚えたいと思ったのが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きっかけです。合唱団での交流を通じて日本人の友達もでき，ホームステイも経験するうちに，もう少し長く日本で住んでみ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そこでまずは，合唱団の関係でお世話になった静岡の高校に1年間聴講生として留学をしました。当時は，簡単な日本語しか分からなかったので，学校に通いながら少しずつ日本語を学びました。帰国後ブダペスト大学の日本学科に進学し，在学中に国費留学生として1年間慶應義塾大学の別科生として，卒業後2年間東京大学の研究生として留学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お陰でそれぞれの学校で異なった視点から日本語を学ぶことができ，バランスはとてもよかったと思います。ちなみに，ブダペスト大学では韓国語コースも並行して受講し，2000年にソウル大学に留学しました。

페스트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코스도 병행해서 수강했고, 200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어 공부방법과 어려웠던 점이나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점은.

일본어에서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은 훈독과 음독이 있는 한자입니다. 하지만, 한자는 모양이 그림처럼 아름다워 몇 번이고 열심히 '그리는' 가운데, 점점 한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도 간단한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한자의 논리를 깨닫고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법으로는 일본인 친구와 펜팔 하기, 수다 떨기는 물론, 텔레비전 보기, 신문 읽기 그리고 일본어능력시험 준비도 매우 도움이 되었지만, 역시 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생활하면 보다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노래방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친구 노래를 들으며, 화면에 표시된 일본어 가사를 보며 일본어를 배웠어요.
사실 헝가리인에게 있어, 일본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어는 일본어나 한국어 같은 알타이 어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어

日本語の勉強方法。難しいと思ったこと，面白いと思ったことは。

日本語で難しいと思った部分は訓読みも音読みもある漢字です。しかし，漢字は形が絵のように綺麗であるため，一生懸命に何回も「描いている」うちに段々漢字を身に着けました。さらに，難しい漢字も簡単な漢字が組み合わさってできているという漢字のロジックに気付き，漢字の意味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勉強方法としては，日本人の友達と文通することやおしゃべりするのはもちろんのこと，テレビを見ること，新聞を読むこと，そして日本語能力試験の準備をすることも非常に役立ちますが，やはり留学生として日本に生活すればより早く，そして自然に日本語を覚えられると思います。また，カラオケも大変役立ちます。私も友達の歌を聞きながら画面に表示される日本語の歌詞を見て日本語を身に付けましたよ。
実はハンガリー人にとって日本語と韓国語を学ぶことはそれほど難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ハンガリー語は日本語と韓国語と同じくアルタイ語族に属しているからです。語順も大体同じで，膠着語であるため様々な語尾が後ろに付くことで意味が変わったり，苗字の次に名前が来る順番や住所を大きい単位から順番で並べることも同じです。これだけ日本語・韓国語と共通点を持っている言語は，恐らくヨーロッパの中ではハンガリー語だけだと思います。つまり，考え方が似ており，日本語と韓国語により親しみを感じやすいので，言葉も学びやすい所があります。

日本で勤務されていた時に担当されていた業務と日本での思い出は。

現在と同じく文化担当でした。私は外交官になって間もなく，行きたかった日本に駐在することになり，その後ハンガリーに戻ってから1年後には希望していた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ました。タイミングよく希望通りの仕事ができたことは非常に幸せなことであり，感謝しております。私は子供の頃に入っていた合唱団で，常にハンガリーを代表するという意識を持って舞台に立ってきました。その影響もあり，その後もハンガリーを代表して，特に文化を紹介できる仕事に就きたいと思ってたどり着いたのが外交官でした。ある意味，「民間外交官」から「本当の外交官」になったとも言えます（笑）。
学生時代，日本企業での勤務や，外交官としての4年間を含

순도 대체로 같고, 교착어라 다양한 어미가 뒤에 붙어 의미가 변하거나, 성 다음에 이름이 오는 순서나 주소를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일본어, 한국어와 공통점이 있는 언어는, 아마 유럽에서는 헝가리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생각도 비슷하고, 일본어와 한국어에 보다 친근함을 느끼기 쉬워, 언어도 배우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할 때 담당했던 업무와 일본에서의 추억이 있다면.

지금처럼 문화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자마자, 가고 싶었던 일본에서 주재하게 되었고, 그 후 헝가리로 돌아갔다 1년 후에는 희망하던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행복한 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들어간 합창단에서, 언제나 헝가리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갖고 무대에 서왔습니다. 그 영향도 있어, 이 후 헝가리를 대표해서 특히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찾게 된 것이 외교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 외교관'에서 '진짜 외교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웃음).

학창시절, 일본기업 근무나 외교관으로서의 4년을 포함, 일본에서는 도합 15년간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으로서의 추억과 외교관으로서의 추억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가능한 많은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결국, 47도도부현 가운데 37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다도 높은 산도 없는 헝가리와 다른 풍경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문화 충격이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모두 함께 목욕하는 문화입니다. 헝가리도 일본처럼 온천 대국이기 때문에 온천을 즐기는 문화는 있지만, 수영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옷을 벗고 함께 목욕하는 일본 문화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온천을 즐기고 싶었던 저는 수영복을 입은 채 들어가려다 저지당했고, 다음에는 타올을 두르고 들어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천은 좋아하지만, 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150년된 디저트 카페 'GERBEAUD'의 시크니처 케익인 '제르보 셀레트'. 부다페스트 · 서울 · 도쿄 3곳에서 맛볼 수 있다.

め, 日本には全部で15年間いました。もちろん学生としての思い出と, 外交官としての思い出はそれぞれ異なりますが, 共通しているのは, できるだけ多くの地域を訪問してみたことです。結局47都道府県のうち37か所を訪れました。海も高い山もないハンガリーと違った風景で, 北海道から沖縄まで美しいところ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

日本で受けたカルチャーショックがあれば。

強いて言えば, 皆と一緒にお風呂に入る文化です。ハンガリーも日本のように温泉大国ですので, 温泉に入る文化はありますが, 水着を着て入ります。そのため, 日本での皆が服を脱いで一緒にお風呂に入る文化はショックでした。しかし, 日本の温泉に入ってみたかった私は, 水着を着たまま温泉に入ろうとしましたが止められ, 次はタオルを巻いて入ろうとしましたが駄目でした。温泉は好きなのですが, 未だに皆と一緒にお風呂に入ることはどうしても慣れないですね。

日本から韓国に勤務地が移った後, 日韓の違いや似ている点など, 感じた点があれば。

日本と韓国も儒教を尊重している国ですので, 年功序列などのところはよく似ていると思います。しかし, 食文化は多少違っていて, 日本では食べ物を全部きれいに食べてしまうのが礼儀ですが, 韓国では少し残して, 「食べきれないほどのおもてなし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ちゃんと表すのがよいそうですね。昔からのハンガリー人は謙遜する部分では日本人に似ている一方, 率直に物事を言う部分やスキンシップが多いという部分では韓国人に似ていると思います。

직도 함께 목욕하는 것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네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고 나서,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 등 느낀 점이 있다면.

일본과 한국도 유교를 존중하는 나라로서 연공 서열 등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 문화는 조금 달라서 일본에서는 음식을 깨끗하게 다 먹는 것이 예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남겨서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대접을 받았습니다"라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옛날부터 헝가리인은 겸손한 부분은 일본인과 비슷한 반면, 솔직하게 말하거나 스킨십이 많은 부분은 한국인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화나 음식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나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는.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유학할 때, 꽃꽂이, 다도, 서도, 유도, 검도 등을 배웠는데, 이 가운데 고토(일본의 전통악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상하게도 몇 시간 동안 정좌를 하고 고토 연습을 해도 다리가 저리지 않을 정도로 연주에 몰두했습니다. 또 연습하는 다다미 방의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 관광지는 '교토, 닛코, 가마쿠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추천하실 것 같아 '가나자와, 나가사키, 하코다테'와 매미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여름의 '히라이즈미', 많은 스키 리조트가 있는 나가노를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산채가 맛있는 야마가타, 차밭이 아름다운 시즈오카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다면.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배운 제가 보면 앞서도 말했듯이, 한국어는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놀랄 만큼 많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일본어를 배우는 게 편해 질 겁니다.

또, 한국어의 한자어와 일본어 한자의 관계성을 알게 되면, 한자나 일본어가 더 외우기 쉬워질 거에요. 이런 논리를 알게 되면, 일본어가 공부하기 쉽고, 재미있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어가 가능한 많은 외국인과 일본어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日本文化や食べ物などでお好きなものがあれば。お勧めの観光地などがあれば。

日本の高校に留学していた時，生花，茶道，書道，柔道，剣道などを習いましたが，その中でもお琴が一番好きでした。不思議ですが，何時間も正座でお琴を練習しても足がしびれなかったほど演奏に夢中でした。また，お稽古をする和室の雰囲気も大好きでした。

お勧めの観光地は京都，日光，鎌倉と言いたいところですが，多くの人から勧められると思うので，金沢，長崎，函館や，セミの鳴き声が綺麗な夏の平泉，避暑地の軽井沢，多くのスキーリゾートがある長野をお勧めしたいです。その他，山菜が美味しい山形，茶畑が美しい静岡も素敵だと思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方にアドバイスをするとすれば。

日本語と韓国語を両方学んだ私から見れば，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韓国語は日本語と似ている部分が驚くほど多いので，その事実に気付くと日本語を覚えるのは楽になると思います。また，韓国語の漢字語と日本語の漢字との関係性に気付けば，漢字や日本語がより覚えやすくなるでしょう。そのようなロジックが分かれば，日本語が勉強しやすくて，楽しい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さらに，韓国人が日本語を学べば，日本語を話せる多くの外国人とも日本語を通じて友達になれますよ。

역사적인 거리

비단의 고장 군마 현 기류 시

일본 문화가 집약된 산업 관광 도시

기류 명물 '소스 가쓰동'과 마스코트 캐릭터 '키노피'

군마 현 기류 시(群馬県 桐生市)는 비단의 고장으로 번성했다. 천하를 판가름하는 전투라 불리는 세키가하라(関が原)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군기(軍旗)를 짜고, 기류텐만구(桐生天満宮)에서 승리를 기원해 멋진 승리를 거둔 데서 도쿠가와 장군으로부터 '상서로운 고장'으로 귀히 여김 받아 직할령(直轄領)으로 발전했고, 일본을 대표하는 비단 산지가 되었다. 지금도 비단산업이 번성해 톱날지붕공장(지붕이 톱날 모양인 비단 공장)이 시내에 200여 동이나 있어,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기류 시는 전쟁이나 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역사적인 시가지와 견직물 관련 산업유산을 비롯한 근대화 유산이 풍부하다. 또 국가가 선정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를 비롯한 일본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일본 유산으로 현 내 12건 가운데 6개의 구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역사 · 문화 · 산업 등이 탁월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단공장은 베 짜는 것을 견학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

기모노 체험

기류 명물 '히모카와'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에 의상을 제공한 띠 전문 업체 '고토오리모노(後藤織物)'에서는 비단공장의 견학은 물론, 싼값에 구입도 할 수 있다.

● **고토오리모노** http://goto-orimono.com/

또 누에고치에서 제품이 될 때까지의 공정을 배우고, 옷감 짜기와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직물참고관 유카리(織物参考館 紫)'에서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손수건을 염색해서 선물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산업 관광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 **직물 참고관 유카리**
http://www.morihide.co.jp/yukariNEW/indexYK.html

그 외에,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본격적인 기모노 착용법 배우기 체험이 있다. 기모노 한 벌과 신발 대여 세트를 3,000엔으로 즐길 수 있다. 직물의 산지인 기류 시이기에 가능한 본격적인 일본 문화 체험이 호평을 얻고 있다.

기류 시에는 역사와 문화가 빚어낸 '음식'도 풍부하다. 특히 기류의 명물로 기류 시가 발상지인 '소스 가쓰동(ソースカツ丼)'은 시내에 전문점도 있다. 기름에 튀긴 돼지고기(안심)에 비법 소스를 발라, 흰 쌀밥에 올렸을 뿐인 심플한 요리다. 타 지역에서는 양배추를 곁들여 내는 가게도 있지만, 기류 시에서는 직물업으로 바쁘다 보니, 아주 간단히 먹던 것이 정착되었다.

또 하나, 기류의 먹거리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히모카와(ひもかわ)'다. 우동이지만, 면 폭이 놀랄 만큼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가게에 따라서는 15cm나 되는 것도 있다. 이 히모카와 또한 면을 자를 시간도 없을 만큼 직물업이 바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모노의 띠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오비카와(おびかわ)'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기류 시내에는 100개 이상의 우동 집이 있으며, 이 기류의 2대 먹거리를 세트로 묶어서 제공하는 가게도 많다.

최근 인기인 키친 마카로니의 '허니 토스트'

무료로 시내를 순회하는 저속 전기 마을 버스'MAYU'

기류 시는 바다와 면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생선 가게를 비롯해서 초밥 집, 장어 집도 많으며, 예로부터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권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탓에 첨단 음식 문화가 일찍이 도입되어, 양과자점이나 화과자(일본의 전통과자)점으로 이름을 날리는 가게도 생겨났다. 또 지금은, 일본의 전통 복장 이외에, 옷감을 짜는 공장도 많고, 유명 브랜드의 옷감을 생산하며 대형 기성복 업체와의 거래도 활발할 정도로 패션과 디자인 면에서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옷과 식도락의 기류'라고 불리는 이유다.

또 '메이드 인 기류'의 섬유 상품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일본 유산의 구성 자산이기도 한 '기류 직물 기념관'이다. 띠와 기모노는 물론, 넥타이와 숄, 가방, 기모노 관련 소품도 풍부하다. 2층에는 직물 자료와 방직기를 볼 수 있는 '직물 자료 전시실'이 있는데, 입장료가 없으므로 꼭 들러 볼만하다. 기류 시는 일본 대대로의 전통과 문화가 계승된 일본 문화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군마 현 기류 시를 방문하기 바란다.

대도시권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공간이 '기류(KIRYU)'에 있다. 일본을 자주 오신 분이나 2, 3번 일본 여행을 하신 분도 일본 문화가 응축된 기류를 방문하면 꼭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다.

● **기류 시 관광프로모션 영상(한국어)**
https://youtu.be/owLRJC_shFs

● **교통**

기차 이용시

도부철도(東武鉄道) : 아사쿠사 역(浅草駅) 기타센주(北千住)에서 특급 료모호(りょうもう号)로 신기류 역(新桐生駅)까지 1시간 40분
J R : 도호쿠(東北), 조에쓰(上越), 나가노(長野) 신칸센으로 료모 선(両毛線)에서 기류 역까지 2시간
(료모 선 = 고야마 역(小山駅) 또는 다카사키 역(高崎駅) 경유)

자동차 이용시

간에쓰 자동차도(関越自動車道)에서 기타칸토 자동차도(北関東自動車道)를 이용, 오타 기류(太田桐生) IC 또는 오타 야부쓰카(大田薮塚) IC에서 시가지까지 20분

● **문의처**

군마 현 기류 시 오리히메 마치 1-1 기류시청 관광교류과
群馬県桐生市織姫町1-1 桐生市役所 観光交流課
TEL : 0277-46-1111 FAX : 0277-40-1283
e-mail : kanko@city.kiryu.lg.jp

(집필: 기류 시, 협력: CLAIR, Seoul)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의 기점

안녕하세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입니다. 이번에 서울문화센터가 7년간 있었던 신촌에서 서울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을 중심으로 차세대 일본 교류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펼쳐왔지만, 2014년말 버스전용도로 공사 이후 소음발생이라는 문제점 등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을 이용하는 분들께 다소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또, 일본정부관련기관이 집중된 서울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일본정부기관과의 제휴관계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센터 이전으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일본정부관광국, 일본무역진흥기구,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일본자치체 각사무소, 서울재팬클럽 등 일본관련 기관과의 제휴관계를 한층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은 KTX와 공항철도의 기점이자, 강남 방면과 한국 전역으로의 접근성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사무소 바로 옆에 홀과 갤러리가 위치해 있어, 앞으로도 서울문화센터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문화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나아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본과 세계의 문화교류를 진척시키고,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문화교류,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연구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은 약 2만 권의 일본도서와 3천개가 넘는 DVD를 소장하고 있으며, 같은 층인 2층에는 3개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일본어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의 활동에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전 위치 정보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동 2층
연락처 : 대표번호 02-397-2820,
문화정보실 02-397-2860~2, 일본어강좌 02-397-2832
문화정보실 이용시간 : 월,수,금, 매월 첫째 토요일(11:00~18:00) / 화,목(11:00 ~19:30) / 일요일,공휴일,토요일(첫째 토요일 제외) 및 센터지정일 휴관
홈페이지 : http://www.jpf.or.kr

만화가 김영오 작가 인터뷰

누구 봐도 재미있는 만화 그릴 것

외무성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007년부터 해외에서 만화 문화 보급과 국제문화교류에 공헌하고 있는 작가에게 '일본 국제만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55개 국가와 지역에서 296개 작품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 1작품(프랑스), 우수상 3작품(중국, 이탈리아, 베트남), 입상 10작품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김영오 작가가 〈요괴난전〉으로 입상했다. 이번호에서는 만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을 방문한 김영오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만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만화 보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림 잘 그린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만화를 계속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현재 웹툰에서도 연재 중인데, 주로 어떤 작품을 그리는지.

주로 시대극이나 역사, 무협 장르를 많이 그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서 제가 건물이나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 현대물을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웃음).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만화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느끼는 만화의 매력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연출한 만화를 보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또, 지금 연출할 때의 느낌과 나중에 연출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연출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화가 변화하는 점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만화도 보시나요. 일본 만화의 매력은.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는 독특한 소재가 많다는 점이 매력인데, 이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만화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 주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좋아하는 만화가가 있다면.

국내 만화가 중에는 윤태호 작가, 강풀 작가, 청설모 작가입니다. 일본 만화가는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다케히코(井上雄彦) 작가, '드래곤볼'의 도리야마 아키라(鳥山明) 작가입니다. 이 분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6년 '제10회 일본국제만화상'에서 〈요괴난전〉으로 입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있으며, 작품을 통해 표현하려 한 것은.

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망하게 되는 전조를 당시 권력자들의 부정 부패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백성들이죠. '요괴난전'은 그 백성이 요괴의 힘을 빌려 양반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심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고, 그 욕심을 요괴나 악귀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본선입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입상에 머문 것이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본선입상을 하고 싶습니다.

요괴난전 ©김영오/이코믹스

본인 만화의 매력은?

제 작품은 남성적이고 동양적인 느낌이 많은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거친 선이나 파란색과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낮은 채도의 색감과 펜 선도 얇게 쓰고 있지만, 선이 굵고 색감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가장 쉬운 말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인데, 누가 봐도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제11회 일본국제만화상 공모 안내

외무성과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제11회 일본국제만화상'을 공모한다. 이 상은 해외에서 만화문화 보급과 만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에 공헌하고 있는 만화작가를 치하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창설되었다.

응모작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에는 '일본국제만화상 최우수상', 3개의 우수 작품에는 '일본국제만화상 우수상'을 각각 수여한다. 이들 수상자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초청으로 수상식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 일본 만화가와의 의견 교환 및 출판사 방문, 지방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모집기간 6월 16일(금)까지
결과발표 12월 경
시상식 2018년 2월(예정)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10, 282)

J-MUSIC NOTES
아마쓰키

아마쓰키(天月, あまつき)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 동영상'을 통해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가창 동영상 총 재생 횟수가 4,400만 회 이상으로 인터넷 가수 중에서도 압도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미소년이 떠오르는 풋풋한 하이톤 보이스가 특징이다. 주로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최근에는 낭독극, 무대, 내레이션 등의 폭넓은 활약으로 성인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두터운 팬 층을 두었다.

트위터 팔로어 수가 52만 명(2016년 4월 현재)을 돌파했으며, 2016년 7월 2nd Album '箱庭ドラマチック'을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5년째가 되는 2016년 '미소의 가교' 'Rainbow 프로젝트'의 테마송 수록 곡인 'LIFE!!'를 불렀다. 또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에 출연하여 열광적인 무대를 선 보였다. 일본뿐 아니라 해외 팬 층도 두터워 메이저 첫 번째 싱글인 '虹の向こうへ/星月夜'를 발표하고 일본 국내외에서 이벤트 출연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twitter: @_amatsuki_ / niconico: mylist/16016171
YouTube: amatsuki2525official
LINE BLOG: http://lineblog.me/amatsuki/

제6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참가 팀 모집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 학생 간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6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참가 팀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며, 6월 28일(수) 본선 진출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예선 심사에서 선발된 5개 팀은 11월 18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되는 본선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입상 팀에게는 외무성이 실시하는 'JENESYS 2017(일본 방문 프로그램)' 참가 자격 등이 주어진다.

모집 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남 지역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일본어연극제' 신청. http://busan.kr.emb-japan.go.jp). 참가무료.

기간 5월 15일(월)~6월 21일(수)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 · 후원 수림문화재단,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한국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시사일본어학원, 한국일본학회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 123, 153)

일본을 알기 위한 고전예능 워크숍
제16기 일본무용교실 & 제10기 샤미센교실 합동 수료공연을 마치고

일본무용교실 수강생 대표 정미령

지난 3월 15일 일본무용교실과 샤미센교실 수강생의 합동 수료공연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진행되었다. 일본무용교실은 2000년 4월 17일부터 1년 일정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3월 14일 '일본무용교실 1주년 기념공연'이라는 제목으로 첫 수료공연을 마친 후, 1년 예정이던 일본무용교실은 일본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일본무용교실 수강생들의 열정과 하나야기 슌토 선생님의 한국과 일본 양국 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의 그리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여러분의 협조로 어느덧 1기생부터 16기생이 함께 수료공연을 갖게 되었다.

샤미센교실도 이마후지 타마미 선생님의 지도로 2007년 4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여 벌써 10번째 수료공연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SJC 회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유카타 조차 입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샤미센교실 수강생의 연주에 맞추어 일본무용교실 수강생이 춤을 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양국 문화교류의 장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다도우라센케 서울출장소 30주년 기념 전시회

다도우라센케(茶道裏千家) 서울출장소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30주년 기록사진집' 출판회와 회원들이 만든 다도구와 함께 개인 소장의 한국, 일본 다도구 등을 전시한다.

또 전시와 함께 류레 데마에(立礼点前, 테이블에서 다도 시범을 보이는 행다례)를 선보이며, 말차와 회원들이 손수 만든 과자를 대접한다. 아울러 일본 다도우라센케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행사 중 고이차(濃茶) 체험을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문의 바란다. 입장 무료.

기간 5월 25일(목)~6월 2일(금) (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다도우라센케 서울출장소 & 우라센케 담교회(裏千家淡交会) 서울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다도우라센케 서울출장소 & 우라센케 담교회(裏千家淡交会) 서울협회
010-9044-0871

제1회 대학생 일본 UCC 공모전 개최

주부산일본총영사관에서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짊어질 한국 청년에게 양국의 관계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고조시키고자 '제1회 대학생 일본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busan.kr.emb-japa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 5월 29일(월)~31일(수)
공모주제
·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참가(관람) 후기
·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내용(사회, 문화, 관광 등)이면 응모 가능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전

분투하는 도시들 : 1960년대 일본의 도시 프로젝트에서부터

현재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떠오르는 도시 팽창과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 일본에서 당시의 젊은 건축가 및 도시설계 전문가가 구상했던 제안을 재조명하면서, 도시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의 공중 도시, 기쿠타케 기요노리(菊竹清訓)의 타워형 도시 등 현대 일본 건축을 이끌어온 건축가의 제안을 형상화한 모형을 비롯해, 해외 4개 도시모형, 일본 6개 도시모형과 영상물이 소개된다.

일시 6월 13일(화)~30일(금) 10:00~17:30(토,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문의 주한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 123)

photo : Arata Isozaki Cities in the Air Photo-Takashi Otaka

제14회 일본가요대회 개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쓰시마 시(対馬市),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제14회 일본가요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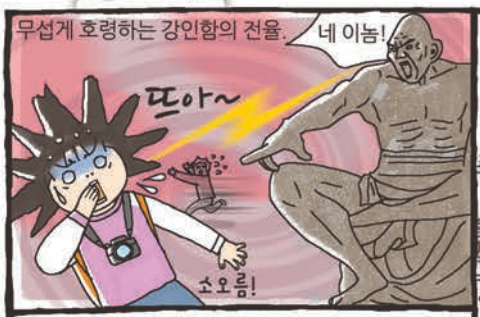
J-POP, 엔카(演歌),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 일본가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예심을 통과한 15개팀이 본선 무대에 도전하게 된다.

일시 5월 27일(토) 14:00~
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 Episode 35 -시마바라 반도가 낳은 거장 조각가 기타무라 세이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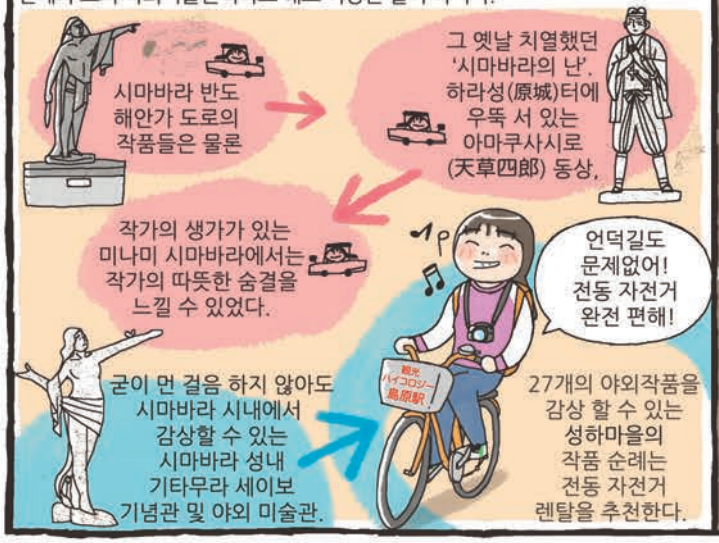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学)보고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라고 불리는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눈물겨운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그중에서도 오오테(大手)강 다리 위 야외 미술관은 걸어서 볼 수 있는 산책코스.

어렸을 때부터 개성적이고 대범한 작품을 창작하여 늘 주변을 놀라게 했고 훗날 문화 훈장 및 문화 공로자로 표창되는 등 나라를 대표하는 비범한 작가가 되었다. 지역을 빛내 나가사키 현 명예현민과 시마바라 시 명예시민으로 시마바라 반도 전체가 그의 야외미술관이라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도한 장 손에 들고 떠나는 시마바라 반도에서의 예술기행 어떠신가요?

maidoookini@naver.com